

오키나와 ‘경험’ 애리조나 ‘기회’



KIA 타이거즈가 13일 체력테스트를 갖고 2016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6일부터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스프링 캠프가 진행된다. 사진은 스프링 캠프가 꾸러질 일본 오키나와 긴구장에서 투수 임기준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DB

박병호, ML 주목할 타자 신인 첫 ‘톱10’

美 스포츠매체 선정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이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를 ‘2016년 주목할 신예 타자 10위’로 꼽았다.

ESPN은 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신예 타자 10명을 소개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박병호의 이름도 언급됐다.

ESPN은 “메이저리그 신인을 순위에 넣는 건 처음”이라며 “한국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던 박병호는 아직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 성적을 예상하는) 빌 제임스 핸드북 2016에는 박병호의 예상 성적을 찾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박병호의 활약을 예상할 근거가

있다.

ESPN은 “지난해 OPS(장타율+출루율) 0.816을 기록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보니 한국에서 2014년 52홈런, 2015년 53홈런을 친 박병호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덴 짐보스키가 고안한 야구 예측시스템 ZiPS(Szymorski Projection System)는 박병호의 2016 시즌 성적을 타율 0.266, 27홈런, 84타점으로 예상했다.

ESPN은 ZiPS의 전망을 언급하며 “박병호가 미네소타 팀 동료 바이런 벅스턴과 2016년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SPN은 외야수 전향을 준비하는 미네소타 미겔 사노를 유망주 중 가장 주목할 타자로 꼽았다.

사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80

경기에 나섰고 타율 0.269, 18홈런, 52타점을 올렸다. 미네소타 구단은 “사노가 우리 팀을 대표하는 타자로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힌 정도로 사노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SPN은 “2016년부터 사노가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사노가 2016년 아메리칸리그 홈런왕이 될 수도 있다”고 과감한 예측을 했다.

호르헤 솔레어(시카고 컵스), 프레디 프리먼(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윌 마이어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클 프랑코(필라델피아 필리스), 조 패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랜달 그리척(25,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도밍고 산타나(밀워키 브루어스), 제로드 다이슨(캔자스시티 로열스)도 주목할 타자로 꼽혔다.

/연합뉴스

동행_Always KIA TIGERS

KIA 새해 첫 집결~2016 대장정 첫 발

13일 체력테스트… 결과 따라 캠프 명단 영향

16일 신진들 애리조나 훈련 뒤 내달 8일 일본행

최영필 등 ‘베테랑’ 내달 1일 바로 오키나와로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요한 ‘호랑이 군단’의 2016시즌이다.

지난 4일 구단 프런트가 시무식을 하고 새해의 업무를 시작했지만 KIA 타이거즈의 선수단은 다른 공식 일정 없이 개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13일이 이들의 D-데이이다.

전국 각지에서 휴식기를 보낸 선수들은 체력테스트를 위해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로 집결한다.

체지방·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 윗몸일으키기를 통해 몸 상태를 점검받는다. 그리고 체력테스트의 하이라이트인 4km 러닝을 소화해야 한다. 400m를 10바퀴 도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19분부터 23분까지 주어진 통과시간이 다르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이들의 윤곽은 정해졌지만 체력 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종 명단이 바뀔 수도 있다.

선수들은 이미 13일과 스프링 캠프에 맞

춰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선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민은 ‘좌완 콤비’ 심동섭·유창식과 오키나와에서 자체 캠프를 치렀고, 부활의 해를 맞은 한기주는 백용환과 배터리를 이뤄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챔피언스필드와 전남대운동장도 KIA 선수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체력테스트가 실시되는 13일에는 ‘동행_Always KIA TIGER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올 시즌을 이끌어 갈 주장 선임도 이뤄진다.

16일 2016시즌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특별한 한 해를 그리며 스프링 캠프 선수단이 비행기에 오른다. 지난해와 달리 미국 애리조나를 경유해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 코스다. 스프링 캠프의 달라진 점은 또 있다. ‘경험과 기회’를 모토로 캠프의 이원화가 이뤄진다. 최영필·김병현 등 경험으로 무장한 베테랑들은 먼 이동거리와

시차를 소화해야 하는 애리조나 캠프 일정을 생각하고 2월1일 오키나와로 직행한다. 고참들이 빠진 애리조나에서는 ‘기회’라는 화두 아래 젊은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전개된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애리조나에서 담금질을 끝낸 선수단은 2월8일 오키나와로 이동해 실전 캠프를 꾸린다. 오키나와에서는 본격적인 기술 훈련·실전 훈련과 함께 2016시즌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실력 점검 무대도 마련된다.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는 국내 팀들은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명문 구단 요미우리, 히로시마 주니치 등과의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애리조나·오키나와 대신 대만에서 이를 갈게 되는 선수들도 있다. 2군 캠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꾸려진다.

3월3일 치열한 캠프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선수단은 숨 고를 틈도 없이 2016시즌을 향한 마지막 어필 무대를 갖는다. 캠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 시즌 구상을 끝낼 시범경기가 3월8일 시작된다.

1월13일 체력테스트를 시작으로 시범경기까지, 최종 리허설을 통과한 선수들은 4월1일 대망의 개막전 무대에 서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LPGA 신인 ‘군계일학’

29명 중 눈에 띄는 적수 없어

신인왕 전망 밝아…동포 활약 변수

201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뛰어드는 ‘함평골프고 출신’ 전인지(22·하이트진로)의 목표는 신인왕이다.

언제나 ‘목표는 비밀’이라는 전인지지만 신인왕과 올림픽 출전이라는 2가지를 목표로 잡았다는 사실을 틈날 때마다 드러냈다. 사석에서 “올림픽은 4년 뒤에 또 기회가 있지만 신인왕은 평생 한번뿐”이라는 말도 했다. 신인왕에 대한 의욕이 크다는 뜻이다. 전인지의 신인왕 전망은 매우 밝다. 전인지가 신인왕을 놓치면 이번 시즌 최대 이변이라고 할 정도다.

올해 LPGA투어에는 전인지 말고는 이렇다 할 특급 신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작년에는 LPGA투어 못지않은 두꺼운 선수층과 경기력을 자랑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1인자로 군림한 김효주(21·롯데)를 비롯해 상금왕을 지낸 장하나(24·비씨카드)와 통산 5승을 차지한 김세영(23·미래에셋)이 ‘신인’ 신분으로 LPGA투어에 합류한 바 있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왕 출신인 백전노장 요코미네 사쿠라와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샤이엔 우즈(미국), 찰리 헐(잉글랜드) 등 유럽투어와 2부투어에서 검증받은 빼어난 선수들이 신인왕 경쟁을 벌였다.

올해는 KLPGA투어에서 LPGA투어로 새로 건너간 선수가 전인지 혼자다. 일본이나 유럽투어에서 눈에 띈 활약을 펼치고 LPGA투어에 뛰어든 신인도 올해는 없다시피 하다.

캘리파잉스쿨 수석 합격자는 늘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캘리파잉스쿨 수석 합격자 평시민(중국)은 지난해 LPGA투어를 뛴 2년차라 신인 자격이 없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전인지가 29명의 신인 가운데 군계일학은 맞지만 경쟁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1년 동안 장기 레이스에서는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동포 선수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포 선수는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강도 높은 훈련 등 한국식 성장 과정에다 미국 대회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LPGA투어 2부투어인 시메트라투어에서 상금왕과 신인왕을 휩쓴 애니 박(21)은 전인지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시메트라투어에 뛰어들어 11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3승을 올리면서 상금왕을 차지했다. 캘리파잉스쿨에서 2위를 차지한 그레이스 나(23) 역시 신인왕을 탐낼 선수로 거론된다. 그레이스 나이는 6살 때 골프채를 잡아 화려한 주니어 시절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 페퍼다인대 재학 시절에는 대학 리그 신인상과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딴 붓사바곤 수카판(태국)도 태국 선수로는 두번째 LPGA 투어 신인왕을 노린다. 지난해 US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1위에 올라 전인지와 함께 시상대에 섰던 강(미국)도 주목받는 신인이다. 이밖에 2013년 멕시코 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이자 작년 미국대학여자골프선수권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가비 로페즈(미국)도 신인왕 경쟁에 뛰어든 태세다.

/연합뉴스

